

「오카야마시장 메일 매거진(39)」 2015 년 1 월 29 일 호

**【영화「데-레- 가루즈」의 시사회에 참석하고】**

안녕하세요.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.

지난해 9월 19일 자 메일 매거진에서 영화「데-레- 가루즈」에 출연한 이야기를 썼습니다만, 이온 몰 오카야마에서 완성 피로 시사회가 개최되어 저도 참석했습니다.

원작은 작가인 하라다 마하 씨가, 오카야마에서 보낸 자신의 청춘 시대를 바탕으로 쓴 우정 이야기로 저는 아직 읽지 않았습디다만, 벌써 읽은 이바라키 오카야마현 지사에 따르면 상당한 감동을 준다고.

영화도 감동 작품으로, 저 자신도 몇 번이나 눈물이 글썽글썽해졌지만, 그런 속에 웃음을 유발하는 장면도 있어, 상상 이상의 멋진 작품이었습니다. 특히 소녀들이 카메라 시선으로 야마구치 모모에 씨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장면 등은 꽤 좋아 약 2시간의 상영 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졌습니다. 확실히 남녀를 불문하고 폭넓은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

또한 영화 속에서 오카야마 코라쿠엔과 오카야마성, 미관지구 등 명소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, 오카야마 연고가 있으신 분이 보시면 향수에 젖지 않을까요.

영화「데-레- 가루즈」는 2월 14일 오카야마에서 선 공개 된 후 2 월 21  
일부터 전국에서 공개합니다.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.

또한, 저도 영화 속에서「과일가게 주인」역으로 두 번 등장합니다.  
(대사는 한 번). 이것은 아마도 웃음을 자아내는 하나의 장면이 될것이고,  
오오쿠 감독의 의도대로 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시사회를  
수행한 시장 비서관실의 여성 직원에 따르면, 제 연기는 영화 속에서 전혀  
위압감이 없었다는 것. 칭찬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....